

목포시, 해상풍력산업 선도도시 도약 ‘시동’

신항에 터빈 등 99MW 기자재 적치 12월 신안 자은도 해상서 완공 목표
기자재 생산·조립·해상운송 선도 6월 기화발전특구 12만6000평 지정

목포시가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목포신항 내 99MW 규모의 해상풍력 기자재가 적치되며 해상풍력 메카 도약에 시동을 걸었다.

9일 목포시에 따르면 박홍을 목포시장은 지난 7일 목포신항을 방문해 해상풍력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목포가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목포신항은 현재 99MW 규모의 해상풍력 기자재가 적치된 상태로 이 기자재들은 자은도 해상으로 운송돼 오는 12월 완공과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 E&S가 주도하는 전남해상풍력 프로젝트는 민간이 주도하는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사업으로 목포신항이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목포신항은 해상풍력 기자재의 생산, 조립, 해상 운송을 비롯해 R&D(연구개발)와 기업 지원 등 전주기를 아우르는 지원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세계 1위 터빈 제조사인 ‘베스타스’와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가 3000억원 규모의 터빈 공장 설립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목포신항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의 ‘기화발전특구’로 지정된 12만 6000평의 부지가 목포신항에 포함돼 향후 해상풍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박홍을 목포시장은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전남 해상풍력 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지난 7일 목포신항을 방문한 목포시 관계자들이 신항에 적치된 해상풍력 기자재를 살펴보고 있다.

목포시 제공

다”며 “해상풍력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세대에겐 더 큰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신안군, 지역특화쿠기 기술 전수
오늘까지 관내 업체 모집

신안군은 10일까지 지역특화쿠기 기술 전수를 희망하는 관내 카페 또는 생산 가능 업체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12월 신안군농산물가공센터에서 실시하며 지역 농특산물인 시금치와 땅콩, 무화과 등을 활용하고 군을 상징하는 로고를 포함한 지역색을 입힌 쿠기 5종을 개발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과정이다.

본 과정은 2차 교육으로 관내 카페 및 제과 제빵 생산 업체 대상으로 추진하며 1차 교육은 주민 대상으로 지난달 23일 실시했다.

신청 방법은 신안군농업기술센터 해당 읍면지소에서 방문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전자우편(vjy7677@korea.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안=홍일갑 기자

해상종합훈련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목포해경, 10월22일까지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오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회에 걸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상종합훈련은 해양경찰 경비함정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2차례를 실시하고 있으며, 목포해경은 3009함을 비롯한 19척의 경비함정이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 훈련은 정박훈련 7종목과 해상훈련 6종목으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장비점검, 상황별 반복 훈련으로 임무수행 전문화, 현장 중심의 실전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목포해경은 이번 훈련을 통해 상황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장 중심 훈련을 확대해 훈련 실효성을 증대시킬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훈련인만큼 실전과 같이 진지한 태도로 훈련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9월 정기분 재산세 77억원 부과
영암군, 이달 30일까지 납부

영암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77억원을 부과했다.

9일 영암군에 따르면 토지분 74억원, 주택분 3억원으로 구성된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소유 기간에 관계 없이 동일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이고 은행 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나 모바일 간편결제 앱으로 가능하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위택스 앱 또는 이메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이체일 전까지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영암군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영암군홈페이지, 현수막, 반상회, 마을방송 등을 통해 납부를 알리고 있다.

재산세에 대한 안내는 영암군 세무회계과 부과팀(061-470-2191·2192)에서 한다.

영암=한교진 기자



강진군 관계자가 해충 방제를 하고 있다. 최근 강진군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교육급여 수급 50가구를 대상으로 방역 서비스를 펼쳤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맞춤 방역

강진군이 최근 주거환경이 열악한 교육급여 수급 50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6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여름철 해충 박멸 및 가정 소독을 통한 쾌적한 양육 환경 조성 사업인 찾아

가는 클린홈 지원사업으로 실시됐다.

지원 가구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된 저소득 가구로 해충 발생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 문제로 자체 방역이 어려운 50가구를 선정했으며 전문업체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총 2회 실내·외 살균·살충 작업을 완료했다.

방역을 통해 바퀴벌레, 초파리, 개미 등 해충 유입경로를 차단하고 각 가정에 맞는 소독 서비스를 제공해 가구 구성원의 질병 예방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집중했다.

지난 4월 1차 방역에 이은 2차 방역 서비스로 추진됐으며 지원받은 가정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아이들의 정서에 큰 도움이 되는 걸로 확인됐다.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군, 지역 특화 음식 밀키트 4종 추가 출시

강진군은 9일 지역특화 음식 밀키트를 통해 다양한 강진의 맛을 전국 사람들에게 알리고 밀키트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강진 대표음식 밀키트를 추가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출시되는 밀키트는 △장동어탕(2종) △추어탕 △장어볶음으로 총 4종이다.

강진장동어탕은 강진읍에 있는 정희네 밥상에서 강진장동어에 해풍에 잘 말린 시래기와 각종 양념을 넣어 정성껏 끓인 제품으로 깊고 진한 맛이 일품이며 용량은 1~2인분(500g), 가격은 1만원에 판매된다.

강진만비단장동어탕은 성전면에 있는 발효담다에서 강진만에서 잡히는 비단장

동어에 잘말린 시래기와 집된장, 각종 양념을 넣어 정성껏 만든 제품으로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며 용량은 1~2인분(500g), 가격은 1만원이다.

강진추어탕은 강진읍 정희네밥상에서 신선한 미꾸라지에 해풍에 말린 시래기와 각종 양념을 넣어 맛이 깊고 진한 제품으로 용량은 1~2인분(500g), 가격은 9000원이다.

강진만장어볶음은 남도음식거리인 마량 미향횡집거리에 위치한 궁전횡집에서 싱싱한 봉장어에 야채, 매콤달콤한 수제 양념을 넣어 풍성한 영양과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제품으로 용량은 2~3인분(700g), 가격은 4만원이다.

모든 밀키트는 신선한 국내산 재료만

을 사용해 만들었으며 간편한 조리 설명서가 함께 제공되고 초록민음강진(<https://greengi.com/>)을 통해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강진의 대표 음식을 밀키트로 만든 이번 제품은 바쁜 현대인들이 집에서 쉽게 강진의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밀키트 추가 출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강진의 맛을 알리고 강진 특화 음식의 인지도를 높여 음식업소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밀키트를 꾸준히 개발해 강진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맛의 도시 강진’ 이미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12월까지 토요일 확대 운영
영암군농기계임대사업소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본격 수확철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덕진본점과 삼호·시종본점을 운영한다.

9일 영암군에 따르면 농기계 전담인력 16명을 3개 조로 나눠 탄력 운영할 계획인 농기계임대사업소는 40종 748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영암 농업인에게 최장 3일간 임대하고 있고 이달 내로 소형트랙터 추가 확보 및 임대에도 나선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올해 상반기 3개월간 토요일 특별 운영으로 1003건의 임대 실적을 올렸다.

임대사업 이외에도 영농부산물 파쇄단 운영, 작업현장 기술지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등으로 영농 현장의 농업경영비 절감에 뒷받침하며 지역농업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암=한교진 기자

‘오매·불망 맨드라미의 사랑’ 전시
신안 저녁노을미술관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은 10월 30일까지 특별전 ‘오매·불망 맨드라미의 사랑’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9월 병풍도 맨드라미 축제 시기에 맞춰 신안군 소장품을 포함한 총 4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된 작품은 맨드라미를 주제로 다양한 양상을 선보이는 14명 작가의 작품이다.

김숙, 김종준, 김지원, 박동신 작가는 어린 시절 맨드라미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을 작품 속에 담아냈다. 김우성, 안운모, 최석은 작가는 평범한 일상의 순간을 포착해 우리 이웃 같은 인물이나 동물들과 함께 맨드라미를 재치 있게 표현했다.

안혜경, 우용민 작가는 실제 신안군 병풍도와 기점 소악도를 방문해 그곳의 맨드라미 풍경을 기록화했으며 김미덕, 김미정, 김순아, 김혜자, 조유섬 작가는 길게 늘어트린 천 위에 맨드라미 생명력을 담아 독특한 매력의 작품을 선보인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전시를 통해 맨드라미가 가진 다양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나아가 내면에 존재한 정열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